

옛사람들과 대화 '감정 비결'

산문박의 禪

고서화 감정 김선원 씨

옛물건 감정한다는 것은 값을 매기는 일이기보다 선인 체취 통해 정신 배우는 일

인사동 대동사학회 서실에는 언제나 목향이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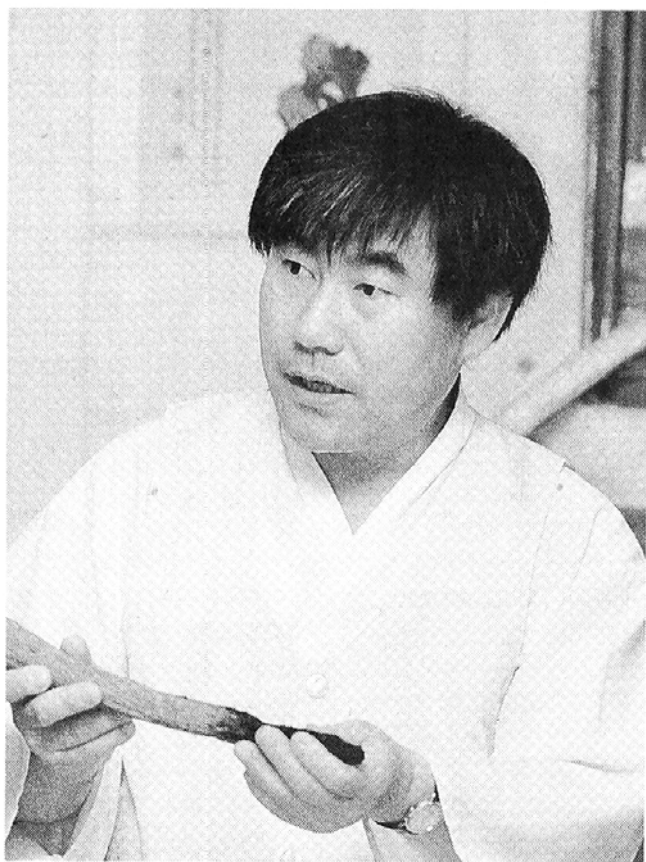
그 목향 속에서 회갑을 진작에 넘겼을 것으로 보이는 연로한 목객들과 서도삼매를 넘나드는 낯익은 사람. 인사동에서는 한복입고 다니는 사람으로 더 잘 통하는 이 서실의 주인이 바로 매주 일요일 오후 KBS2 TV 'TV쇼 진품명품'에서 해박한 지식과 예리한 안목으로 고서화와 전적의 진가를 밝혀 내는 김선원씨다.

충남 청양에서 해방동으로 태어난 김씨는 외가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한학과 서도에 입문 했다. 외숙 성백효

는 것이다. 다음은 학풍을 본다. 이 역시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학풍에서 연유된 내용일때 시대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로 보는 요건은 종이의 질이다. 종이의 질을 대비하는 기준은 대개 그 시대에 발간된 책력(冊曆)의 지질을 삼는다.

대부분의 서화나 전적은 이 세가지 요건으로 판별이 되는데 김씨는 이를 요건보다 더 중시하는 것이 있다.

"상우천고(尙友千古)란 말이 있습니다. 천년전의 사람과 벗이 된다는 뜻인데 고서화나 전적을 보며 옛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지요. 대화가 되지



읽고 보고 쓰다보니 안목생겨...가짜보면 '분노' 쓰기 수행 40년 "아직 내글씨 내맘에 안들어요"

옹(전통문화연구원 이사)과 어머니의 영향으로 김씨는 국민학교 입학전에 천자문을 배우고 서예의 기본기를 익혔던 것이다.

그는 연암 박지원의 고손자인 우관 박이양선생에게 한학과 서예를 배웠으며 서울대 미대 1회 졸업생인 황남 정환선생에게도 필법을 사사 받았다. 또 광산김씨의 가풍을 이어온 집안에는 고서적이 가득해 어려서부터 고서를 보는 안목도 자연스레 길러 졌다.

한석봉의 글씨로 벽을 도배했을 정도였는데 그것이 귀한 것인 줄 알고 떼어둔 것이 지금도 후 물은 채로 보관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고서화나 전적을 감정하는데 김씨가 중시하는 요건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그 시대의 유행서풍과 일치하느냐 하는 점. 안평대군 시절에는 안평대군의 서체가 풍미했고 한석봉의 시대에는 한석봉의 서체가 유행했을 것이므로 그 시대의 서풍과 일치하지 않으면 동시대 작품으로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않으면 문제가 있는겁니다. 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예를들면 부친상을 당해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쓴 축문을 보면 나도 그 슬픔을 느끼게 되고 슬에 취해 쓴 글을 보면 나도 취한다는 겁니다. 나는 슬을 마실 줄 모르지만."

그러니까 옛 사람의 체취나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는 물건을 만나면 마음의 대화를 통해 내용을 느끼고 그 진위여부도 알아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짜를 만나면 분노를 느낀다.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고귀한 선조의 이름을 더럽히는 얕은 상술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고서화나 전적과의 대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수없이 읽고 쓰고 보는 가운데 길러지는 경지인 것이다.

옛 물건을 감정 한다는 것. 그것은 물건의 값을 매기는 기준이기 보다 선인의 체취를 바로 느끼는 일이다. 그래서 김씨는 진품을 만나면 대화를 통해 옛사람의 정신을 배우고 마음을 읽는 즐거움을 만끽하는데 그 즐거움은 누

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다고.

필법을 구사하는데도 김씨는 늘 독특한 방법을 추구한다. 보통의 서예인들은 하나의 필법을 연마하지만 김씨는 고공을 막론하고 두루 섭렵하는 편이다. "누구나 다 하는 필법에 안주하면 발전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래서 그는 갑골(甲骨文)문자를 응용하고 손톱과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기도 했다. 요즘은 청양 칠갑산에서 채취해 온 흙뿌리로 글씨를 쓰고 있다.

"조선 중엽에 좌의정을 지냈던 허목 선생은 당대 동양 3국에서 최고의 전서가로 꼽혔는데 그 분이 흙뿌리로 글씨를 썼다는 기록을 보고 시도한 것입니다. 흙뿌리로 쓴 글씨는 매우 거칠죠. 그러나 그 거친 필체는 인간의 본성을 일깨우는 굳센 맛이 있어요. 특별히 다듬어질때 만든 탁종(拓宗)에 쓰는 이 글씨의 투박함과 거친 맛으로 인간본연의 성품과 그에 순응하는 삶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제

대로 된 글씨가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김씨는 "글씨는 마음의 거울이므로 스스로 평온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면 그만큼 맑은 글씨가 되고 힘줄이고 어지러우면 글씨도 난잡해 지니까 글씨 쓰는 일은 사람에게 중요한 수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김씨는 매우 거친 필체를 구사한다. 그렇다고 그의 행동이 거칠고 마음이 탁한 것은 아니다. 마음 속에 순한 것을 지녔으나 거칠게 표현하는데도 경지가 필요했다. 그저 "아직은 젊어서였지요. 나이가 들면서 조용한 필법으로 익어가겠조"라고만 말하는 김씨는 아직 한번도 개인전을 열지 않았다. 40여년의 필력을 가진 서예가로서 단 한번의 개인전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사뭇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이유는 어렵것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내 글씨가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임연태 기자

잠이 많아 걱정입니다

문 학생입니다. 공부할 것은 많고 시간은 부족인데 잠이 많아 걱정입니다. 잠을 적게 자려면 그럴수록 더 쏟아지고, 밀려 놓는다고 하던데 시험때면 더 많이 자게 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하경림·경기 과천시 별양동)

답 졸리면 자야하고 배고프면 먹어야 하지요. 그게 법입니다. 잠이 쏟아지는데 억지로 안자겠다고 버틴다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농부들도 할때는 쉬어야 합니다. 내 몸 속의 온갖 중생들도 쉴 때는 쉬어야 하겠지요. 밀려 놓는데도 잠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내 말은 하루 24시간 생활하면서 참나참나 그대로 주인공의 나뭇잎이 잠 오는 것만 맡기라는 식은 아니지요. 시험 때라서 긴장이 되는 날 오히려 잠이 더 쏟아지는 것은 좋은 시험이라는 속제를 들고 지냈으니 그런 것 아닙니까? 시험을 잘 보고 잘못 보고도 주인공 뉘이고 잠을 많이 자고 안자고도 주인공 뉘이니 나는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움직일 뿐입니다. 그 이상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지요 학생이니까 으레 규칙생활을 떠난 그런 것이던가요.

깨달음도 나 나온 자리에 있고 더디다는 생각도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일체를 나온 구멍에 되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푸른하늘인데 구름에 가려 있을뿐이듯이 자성이 본래 청정함에 무림에 가려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름 같하면 그냥 푸른하늘인 것이지 없던 하늘이 어디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경건이나 조사어록에도 다 있는 얘 기입니다. 방편을 물으시는데 그 방편 또한 진작에 가르침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가르치기를 '모든 것은 나의 근본인 주인공의 나뭇잎이라 믿어 행주좌와 중에 '나'라는 생각을 속 빼고 주인공에 놓고 맡기'라고 합니다. 방법이라고 한다면 바로 들어 가는 방법이지요.

본란을 통해 여러차례 말씀 드렸으니 지난 간 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아프게 부모 因果인지

문 오래 기다렸다가 얼마전에 찾아가 볼았습니다. 그런데 애기가 갑자기 아프더니 병원에서 무슨 병인지 알수 없었고 합니다. 제가 전생에 지은 인(因)으로 해서 애기가 고통을 받게 아닌가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

지 상 상 답

길을 묻는 이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 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미음선원 대령스님께 묻 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할테고요, 그저 할 수 있는 시간에 열심히 할뿐 시험도 보고 잡도 보고 가도록 하세요. 잠을 적게 자야 시험을 잘 보든지 말든지 할게 아니라 고쳐 써야 할게 맞습니다. 저절로 도는 바람개비에 못질할 한 것과 같습니다.

'생사'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세요

문 아직도 깨우치지 못한 탓인지 경전이 나 조사어록을 늘 대하면서도 생사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아닐까, 참다운 삶이란 무엇이며 영원히 죽 지않는 법은 무엇인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깨달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편이 좋은지요. 이 가슴을 펴 풀어주는 가르 침을 바랍니다. (이인수·서울 노원구 상계동)

답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작이 있는 것 은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이지요. 제행무 상이라 하지 않던가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이란 없습니다. 진리를 일컬어 영원하다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진리는 진리 그 자체일 뿐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 붙일 않 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쩌나 하신다는데 인생이란 누구나 한결 놀러 나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던가요. 마치 배역을 받고 무대 위에 올라 가 막이 내릴 때까지 맡은 역을 충실하게 하는 배우와 닮았다고 할 수 있지요. 아마도 공부에 진전이 없이 하루하루 보낸다는 생각을 하시 는 모양인데 공부란 어디 목표를 정해놓고 길 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영호·경기 이천군 부발읍)

답 이 세상 살림살이를 보아도 금은 금끼 리 은은 은끼리 쇠는 쇠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인과 현재의 과로 작용하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픈사람을 곁에서 보는 사람하고 병고 당하는 사람하고 다 같은 인과에 얽혀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미 과보 에서 풀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일체의 모든 것, 이 우주천지의 모든 것이 나온 근본이 바로 마 음에 직결되어 있음을 알고 그 직결되어 있는 마음의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되 맡겨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맡겨 놓을때, 이 병이라는 것도 거기서 인과응 보로 나온 것이니까 나온 곳에 다시 믿고 맡겨 놓는다면 거기서 알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땅에 앉았으면 앉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능력은 누구나 갖추 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자기가 지은 것 자기가 풀어야 하고 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 면 마치 물이 화해 증기가 되듯이 마음으로 인과응보를 지었던 그 업이 그냥 송두리째 무 너져 녹아내리게 됩니다.

주인공에서 나온 것이니까 주인공이 고쳐라. 주인공 당신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진정으로 믿어보세요. 그러되면 다시 보살로 재생이 되어 업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몸 속의 모든 세포의 생명들이 활개 를 치면서 원활하게 대사를 하게되고 비로소 병세가 낫게 됩니다. 이런 이론이 아니라 실천 이요 믿음이 남는 체험입니다.

전연색 화보를 곁들여 봉축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애줄 사월 초파일 법보시용 소책자

부처님오신날

500부 이상 주문시 뒷표지에 해당사찰의 주소, 전화번호, 법회안내, 법회식순, 시주자명단 등을 원하시는 대로 인쇄해 드립니다. 별도 인쇄의 부담이 없으므로 주문은 최소한 10일 이전에 해주십시오.

국판 36면 본문 100SW 사용 원색인쇄
법보시 보급특가: 부당 1,000원

문의처/불교방송 사업부 ☎ (02) 705-5302~6
 특관팀: (02)718-4625-9 부산: (051)852-2220
 서울제1사업소: (02)706-3502 대구: (053)735-9537
 서울제2사업소: (012)353-1081 광주: (062)339-4848
 서울제3사업소: (012)200-7300 원주: (0371)763-0857
 불교방송 매점: (02)705-5307

전화 문의하시는 사찰에는 건본 1부를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를 사용
해 보
세요!
!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뒷덜이 고통스럽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있다. ()
18.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받는다. ()

2가지 이상 관련되는 문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